

2023. 3. 21.(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3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역사박물관 총무과

경영지원부장	장 화 영	724-0105
총 무 과 장	김 춘 섭	724-0108
담 당 자	고 다 은	724-0112
누 리 집	museum.seoul.go.kr culture.seoul.go.kr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서울역사박물관, 장애 넘어 모두를 위한 ‘배리어프리영화관’ 오프라인 상영

- 상반기(3~6월) 넷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1층 강당(야주개홀)에서 배리어프리영화관 개최
-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넣은 영화
- 3월 23일(목) 오후 2시 첫상영,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 수상 <한창나이 선녀님>
- 시·청각 장애인을 포함하여 어린이, 어르신, 외국인 등 누구나 선착순 관람가능, 무료

서울역사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이 2023년에도 계속해서 막을 올린다.
 첫 상영인 3월 23일(목) 오후 14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강당(야주개홀)에서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힐링·감동 다큐멘터리 <한창나이 선녀님>을 배리어프리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다.

○ ‘배리어프리’란 ‘장벽 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관한 보고서에서 유래한 말로,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개념이다. 본래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해 오늘날에는 건축 시설물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로 적용·확장되어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 ‘배리어프리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서 재제작한 영화로, 장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영화를 즐기는 것을 취지로 한다. 임윤아, 김우빈 등 인기 방송인과 영화감독들의 재능기부로 배리어프리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며 서울역사박물관은 (사)배리어프리위원회와 협력하여 2015년부터 꾸준히 상영을 이어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에는 집에서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화제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거리두기 해제 이후 다시 현장 오프라인 상영을 재개하였다.

□ 상반기 박물관 배리어프리영화관에서는 총 4회의 배리어프리버전 영화가 상영 예정이다. 3월 첫 상영작 <한창나이 선녀님>뿐만 아니라, 4월은 아카데미 시상식 3관왕 등 다수 영화제 수상작 <코다>가 준비되어 있으며 5월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고전영화 <시집가는 날>, 6월은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적으로 떠오른 배우 이정은의 첫 단독 주연작 <오마주>까지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을 만나볼 수 있다.

○ 3월 23일에는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관객상을 수상한 <한창나이 선녀님>이 상영된다. 강원도의 아름다운 사계와 소박하고 정겨운 시골 풍경을 통해 바쁜 일상 속 힐링을 선사하는 휴먼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 4월 20일에는 아카데미, 선댄스 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코다>가 준비되어 있다. ‘코다(CODA)’는 농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Children of Deaf Adult의 줄임말로,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들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망설이는 소녀 코다 루비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담아낸 작품이다.

○ 5월 25일 <시집가는 날>은 오영진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한 고전이다, 한국영화 최초로 아시아영화제 희극상을 수상했으며 김승호,

조미령 등 한국고전영화의 친숙한 배우들이 등장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 6월 22일 연기파 배우 이정은의 첫 단독 주연작 <오마주>는 고전영화 필름을 복원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시간여행을 하게 되는 중년 여성 감독 지완의 이야기로 도쿄국제영화제, 트라이베카영화제 등 다수 영화제 상영되었다.

□ 관람은 모두 무료이며, 별도의 사전예약 없이 당일 오후1시 30분부터 선착순으로 자유입장 가능하다. 사회복지시설 단체관람은 사전에 전화 연락(02-724-0112) 시, 무료 주차권을 지원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역사박물관 누리집(museum.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용석 서울역사박물관장은 “배리어프리영화관을 통해 장애인·비장애인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즐기고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 '23년 상반기 배리어프리영화관 홍보물 1부. 끝.

< 붙임 >

'23년 상반기 배리어프리영화관 홍보물

배리어프리영화관 홍보물

자막으로 듣고 소리로 보는 배리어프리영화관



3월 23일 한창나이 선녀님 5월 25일 시집가는 날
4월 20일 코다 6월 22일 오마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야주개홀

*모든 영화는 배리어프리버전입니다.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서울역사박물관
SEOUL MUSEUM OF HISTORY

KOBAFF
(사)배리어프리영화협회

박물관 정문 현수막

□ 배리어프리영화관 리플릿

6월 22일 (목) 오후 2시

오마주

배리어프리버전

2021 | 한국 | 108분 | 감독 신수원 | 12세이상관람가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신수원 | 음성해설 내레이션 한예리

줄거리

엄마 영화는 재미없다는 아들과 늘상 밟다령인 남편, 잇따른 흥행 실패로 슬럼프에 빠진 중년의 영화감독 지안. 아르바이트 삼아 60년대에 활동한 한국 두 번째 여성 영화감독 홍은원 감독의 작품 <아편사>의 필름을 복원하게 된다. 사라진 필름을 찾아 흥감속의 마지막 행적을 따라가던 지안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모자 쓴 여성의 그림자와 함께 그 시간 속을 여행하게 된다.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전문 영화인들로 구성된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창작자인 감독이 제작에 직접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배리어프리영화를 제작하고 상영, 배급, 교육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시각·청각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Tel: 02-6258-3200 E-mail: barrierfreefilms@gmail.com
www.barrierfreefilms.or.kr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주는 서울도시역사박물관입니다. 도시 서울의 역사를 담은 상설전시실, 기획 전시실, 교육유물전시실, 교육실, 강당이 있으며 유아부터 성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사문화강좌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 프로그램·박물관 주요음악회, 재능나눔 콘서트, 국제다양성영화·음악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오시는 길



※ 2023년 배리어프리영화관은 3·6월, 8·9월, 11월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상영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신분교2가) Tel: 02.724.0274-6
www.museum.seoul.kr
서울역사박물관
instagram/seoulmuseum
facebook.com/seoulmuseum.korea
twitter.com/seoulmuseum
www.youtube.com/c/seoulmuseumofhistory

자막으로 듣고 소리로 보는 배리어프리영화관



3월 23일 한창나이 선녀님
4월 20일 코다
5월 25일 시집가는 날
6월 22일 오마주

서울역사박물관 1층 아주개울
*모든 영화는 배리어프리버전입니다.



리플렛 외지

3월 23일 (목) 오후 2시


한창나이 선녀님

배리어프리버전

2021 | 한국 | 83분 | 감독 원효원 | 다큐멘터리 | 전체관람가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원효원 | 음성해설 내레이션 이진화

줄거리

세계 날은 소도 돌보고, 자봉에 날아든 도루묵도 건어아 하고, 나무에 올라 갈도 마고, 뱀사 타고 환금 배우려 시도도 나가야 하고, 강원도 삼척 어느 산속에서 혼자 사는 선녀님은 알아서 일 붙여 없다. 봄이 열 개기도 부족할 선녀님이 또 할만 일을 냈다. 평생 산 하나 밖에 못 넘어 본 그녀가 오랫동안 살던 집을 떠나 새길 짓기를 결심한다.



배리어프리영화 Q&A

배리어프리영화란?

기존의 영화에 화면을 설명해주는 음성해설과 화자 및 대사, 소리정보를 알려주는 배리어프리자막을 넣어서 시각, 청각장애인을 비롯하여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든 영화입니다.

4월 20일 (목) 오후 2시


코다

배리어프리버전

2021 | 미국, 프랑스 | 111분 | 감독 선 헤이다 | 12세이상관람가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윤재균 | 음성해설 내레이션 장동운

줄거리

24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가족을 세상과 연결하는 코다 루비는 객사당하는 마일스를 따라간 함창단에서 노래하는 기쁨과 숨겨진 재능을 알게 된다. 함창단 선생님의 도움으로 마일스의 듀엣 콘서트와 버블리 음대 오디언의 기회까지 얻지만 자신 없이는 어려움을 겪게 될 가족과 노래를 향한 꿈 사이에서 루비는 망설인다.



지금까지 어떤 영화들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만들어졌나요?

한국영화 <오마주>, <우리의>, <남매의 여름밤>, <감쪽같은 그녀>, <송년 1927>, <에디메이션 (별의 정령)>, <드림팀>,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외화 (코다)>, <그레타 톨버리>,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파리로 가는 길>, <열 포스티노> 등 다양한 국내의 영화를 비롯해 <오발탄>, <사랑할 손님과 어머니>, <오즈의 마법사> 등 고전영화도 배리어프리영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5월 25일 (목) 오후 2시

시집가는 날

배리어프리버전


1956 | 한국 | 79분 | 감독 이병일 | 전체관람가
배리어프리버전 연출 백승화 | 음성해설 내레이션 김세벽

줄거리

맹진사는 딸 갑분을 판서택 아들 미연에게 시집 보내 세도가의 사돈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미연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갑분의 몸종 임분을 미연에게 대신 시집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혼인날 나타난 판서택 아들 미연은 절름발이가 아닌 늙름하고 당당한 신랑이었다. 맹진사는 당황하여 딸 갑분을 혼례장으로 데려오라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임분이 미연과 혼례를 지르게 된다.

배리어프리영화는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인가요?

배리어프리영화는 장애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영화를 즐기자는 취지의 영화입니다. 시각·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어린이,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누구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목표로 합니다.



리플렛 내지